

**3rd Raonatti Thailand
REPORT in MAY**

**이 지 윤 작성
2010. 5. 30**

- 1. Raonatti - Thai Youth
Friendship Camp
(2010. 5. 4 ~ 5. 8)**

- 2. Thai Language Class & Exam
(2010. 5.3 / 5.10 ~ 5.11)**

- 3. Chiangrai Visa Trip
(2010. 5.12 ~ 5.14)**

- 4. Make a Report
(2010. 5.15 ~ 5.16)**

- 5.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and Village
(2010. 5.19 ~ 5.27)**

- 6. Midterm Evaluation
(2010. 5.26 ~ 5.28)**

1. Raonatti - Thai Youth Friendship Camp (2010. 5. 4 ~ 5. 8)

Preparing 'Raonatti - Thai Youth Friendship Camp' (2010. 5. 4)

라온아띠 태국팀 단원들은 YMCA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는 위, 시아, 파이 등 태국 친구들과 함께 'Raonatti - Thai Youth Friendship Camp' 준비 회의를 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규칙 등을 정하고, 위, 시아가 직접 만든 캠프 노래를 다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온아띠 태국팀은 유스 캠프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한복 입어보기 체험', '한국 대중가요 배워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Raonatti - Thai Youth Friendship Camp' 1st DAY (2010. 5. 5)

AM 08:00 참가자 등록

아침 일찍부터 유스 캠프를 신청한 30여명의 참가자들의 등록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유스 캠프 참가비 대신 자신이 사는 곳의 특산품이나 쌀, 소스 등의 식료품을 내며 등록을 마쳤습니다.



AM 09:00 오리엔테이션

전날 유스 캠프 준비 회의 때 의논했던 캠프 기간 동안에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미리 언급한 다음, YMCA 유스 캠프 노래를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M 10:00 페차린의 YMCA 오리엔테이션

치앙마이 YMCA의 수장이신 페차린 선생님의 YMCA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치앙마이 YMCA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라온아띠 태국팀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캠프 참가자들은 ‘평화’, ‘우정’,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M 10:45 서로에 대해서 알기, 그룹 나누기

캠프에 참여한 30여명의 학생들이 동그랗게 큰 원을 만들어 앉아서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히 자신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 등을 말하고, 소개가 끝난 뒤 뒷사람은 앞에서 소개가 끝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식으로 서로의 이름을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 원으로 앉은 순서대로 1,2,3,4,5 번호로 무작위로 나눠 5개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5개의 팀마다 라온아띠 단원들이 한 명씩 속해있었고, 5~6명의 태국 친구들과 한 팀을 이루어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각 팀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치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PM 14:00 싹캉펍 YMCA 활동

캠퍼들이 활동하고 숙식을 해결할 싹캉펍 YMCA를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그룹별로 청소 범위를 나눠 어떤 조는 정원, 어떤 조는 화장실, 교실 청소 등을 하며 캠퍼들이 묵을 곳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PM 20:30 라온아띠 팀 수업 -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라온아띠 태국팀 남미영 단원이 주가 되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번 유스캠프 주제가 평화, 환경보호여서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수업을 넣게 되었습니다. 라온아띠 국내훈련 때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역할 카드를 나눠주고, 카드에 쓰여진 대로 자신이 속한 국가의 사람이 되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유스 캠프에 참가한 캠퍼들이 이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생각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내훈련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최빈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국내훈련 때, 최빈국 사람이 되어 주스를 거의 못 마시게 되었을 때는 강대국 사람들을 보며 부러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빈국 사람이 된 다른 태국인 친구들은 주스를 조금 받아도 계속 웃으며 행복하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 태국인들의 긍정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Raonatti - Thai Youth Friendship Camp' 2nd DAY (2010. 5. 6)

AM 06:30 아침운동

아침에 일어나 싹캉펑 YMCA 앞에서 모인 다음, 근처에 있는 공터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이번 유스 캠프의 주 진행자인 위, 시아의 시범이 있던 후에 참가자들이 한명씩 나와서 자신이 아는 운동을 앞에서 선보이며 30분가량 운동을 했습니다. 모두들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다양한 자세의 운동을 하면서 웃으며 잠을 깰 수 있었습니다.

AM 10:45 페인트칠하기

싹캉펑 YMCA에 있는 책상에는 낙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말마다 와서 공부하는 책상인데 안 좋은 말로 낙서가 많이 되어있고, 더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책상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2,3 층에 있는 모든 책상을 밖으로 옮기고, 야외에서 책상에 새겨진 화이트 낙서 자국을 사포질을 통해 지운 다음 하늘색, 핑크색, 주황색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칠을 했습니다. 이날에는 전체 책상의 반 정도를 색칠을 하고, 나머지 책상은 다음날 칠하기로 했습니다.



PM 16:30 물풍선 배구, 축구

다섯 개의 조가 토너먼트 식으로 물풍선 배구 경기를 했습니다. 물풍선 배구를 하며, 무거운 공을 잡으면 환호가, 공이 터져 물이 뿜어지면 모두가 웃는, 즐거운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물풍선 배구가 너무 재미있었던 나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축구장 이용시간이 지나서 남자 캠퍼들은 다른 곳에서 짧은 시간동안 축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PM 20:30 워킹스트리트 프로그램 회의

유스 캠프 마지막 날인 5월 8일 토요일 저녁에 있을 워킹 스트리트 행사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회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라온아띠 팀, 치앙마 이 대학교 학생들, JKY 단체 학생들 등 서로 각기 다른 단체에서 온 팀끼리 각자 어떤 퍼포먼스를 할지 의논하고 준비했습니다.



'Raonatti - Thai Youth Friendship Camp' 3rd DAY (2010. 5. 7)

AM 08:00 게임

아침 운동을 끝나치고 개인 시간을 보낸 뒤, 팀끼리 나눠 앉아 게임을 했습니다. 빨대를 하나씩 물고, 빨대 끝에 고무줄을 매달아서 다른 사람의 빨대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조가 빨리 고무줄을 넘기는지 속도감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빨대 고무줄 게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 'PET병에 어느 팀이 물을 빨리 채우나' 게임을 했습니다. 대야에 담긴 물을 손으로 푼 다음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PET병으로 옮기는 게임이었습니다. 페인트칠을 하기 전에 했던 게임이어서 그런지 모두들 활기차고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AM 09:00 페인트칠하기

전날 다 끝내지 못했던 책상에 페인트칠 작업을 했습니다. 책상뿐만 아니라, YMCA에 있는 가구들도 색칠하고, 분리수거함도 새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했던 일이라 그런지 순조롭게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를 비롯해 이날도 낮 기온이 40도를 육박해서 땀을 많이 흘리며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예쁘게 색칠되어진 책상과 가구 등을 보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 참 뿌듯하고 기뻐했습니다.



PM 19:00 라온아띠 팀 수업 - 한국 문화

원래 전날에 예정되었던 한국 문화 수업이 페인트칠로 피곤해졌을 캠퍼들의 컨디션을 염려해서 이날로 옮겨서 수업을 했습니다. 주한이 단원과 이지윤 단원은 ‘아름다운 한복 - 운선제’ 에서 협찬 받은 한복을 입고 PPT를 통해 한복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하였습니다. 소개가 끝난 뒤에는 태국 친구들 세 명이 앞에 나와서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을 찍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복 수업이 끝나자마자 박상준 단원의 ‘한국노래’ 수업이 있었습니다. ‘동방신기의 풍선’ 을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한국 대중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두들 흥미를 가지고 큰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PM 21:00 Yong Zour 밴드 콘서트

이번 유스 캠프의 주 진행자인 위, 부 진행자인 시아가 속해있는 Yong Zour 밴드가 쌤캠프 YMCA에 방문하여 체육관에서 미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태국 대중가요를 비롯해 다양한 곡을 연주하며 캠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PM 23:00 워킹 스트리트 퍼포먼스 준비

유스 캠프의 마지막 행사인 워킹 스트리트 퍼포먼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라온아띠 태국팀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쓰레기통, 페트병, 도마, 막대 등을 가지고 난타 퍼포먼스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짧은 연극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Raonatti - Thai Youth Friendship Camp' 4th DAY (2010. 5. 8)

AM 10:00 워킹 스트리트 퍼포먼스 준비

라온아띠 오피스에 가서 연극에 필요한 소품 등을 제작했습니다. 지구, 꽃, 나무 등을 두꺼운 도화지에 그리고 포스터물감으로 색칠하고 아스테이지로 씌우는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친 다음에는 난타 퍼포먼스를 다같이 맞춰보고 마지막으로 리허설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PM 17:00 워킹 스트리트 퍼포먼스 시작

매주 토요일마다 싹캉펑 지역에서 열리는 워킹 스트리트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야시장입니다. 이곳에서 'Raonatti - Thai Youth Friendship Camp' 의 마지막 장식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로에 분필로 '지구온난화' 에 대한 생각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이번 유스 캠프 참가자들이 준비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관람하였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플래시 몹을 한 다음에, 치앙마이 대학교 학생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시를 낭독하고 행위극을 했습니다. JKY 단체에서는 신문지, 비닐 등 쓰레기로 만든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했습니다. 저희 라온아띠 팀은 그 전날 연습한 난타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짧은 극을 공연했습니다. 워킹 스트리트에 온 동네 사람들과 이번 캠프 참가자들 모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 Thai Language Class & Exam (2010. 5.3 / 5.10 ~ 5.11)

두 달 여 동안 배웠던 태국어 수업이 5월 11일자로 끝났습니다. 정기적이지는 않았지만, 매일 3시간씩 YMCA 스태프이신 피뿌, 피멈 선생님께서 태국어를 배웠습니다. 기본 단어에서부터 회화까지, 두 권의 책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 태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1시간 동안 필기시험을 보고, 남은 시간에는 태국어로 자기소개 글을 연습하고 앞에 나가서 말하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서는 예비뽑기로 뽑은 태국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에 태국어를 처음 배울 때는 이해가 안 되어서 울기도 했는데,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고 나니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태국어를 공부하며, 태국 사람들과 간단한 말을 할 수 있고, 알아듣는 태국어가 있다는 것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태국어를 배우며 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달 여 동안 저희 라온아띠 태국팀 단원들에게 태국어를 가르쳐주셨던 피뿌, 피멈 YMCA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3. Chiangrai Visa Trip (2010. 5.12 ~ 5.14)

2010. 5. 12

류지현 단원 생일

5월 12일은 태국팀에서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 류지현 단원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남미영 단원은 미역국을 만들고, 그 전날 동네 과일가게에서 구입한 망고스틴으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지윤 단원은 밥을 짓고, 카드를 썼습니다. 주한이, 박상준 단원은 생일 축하 곡으로 선물할 노래를 찾고 직접 불러주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까지 4월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피곤한 하루를 보내며 많은 애를 썼던 류지현 단원. 류지현 단원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치앙라이 비자트립 - 버마 국경, 골든 트라이 앵글 방문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치앙라이로 비자트립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치앙마이 싹캉펑에서 치앙라이까지는 차로 3시간정도 걸렸습니다. 피똥 아저씨께서 운전을 해주셨고, 피요가 함께 동행 하였습니다. 3시간여를 달린 끝에 도착한 치앙라이 YMCA 호텔. 이곳에서 4월 말에 저희와 함께 생활하다가 헤어졌던 안예지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예지 친구와 함께 태국-버마 국경으로 비자를 연장하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버마로 넘어갔습니다. 1시간 30분정도 버마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버마 시장에는 루이비통, 아디다스, 나이키, 롤렉스 시계 등 짝퉁 물건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태국과는 또 다른 느낌을 풍기고 있었던 버마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버마에서 비자를 연장하고 난 뒤, 버마-태국-라

오스 이 세 국가가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지점인 'Golden Triangle' 에 갔습니다. 'Golden Triangle'의 태국의 화려한 장식품등을 보며 태국의 위엄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다 끝나치고 치앙라이 YMCA 호텔에 돌아와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0. 5. 13

치앙라이 비자트립 - Doi Tung Royal Villa & Mae Fah Luang Garden (왕비정원)

아침 일찍부터 Doi Tung Royal Villa & Mae Fah Luang Garden에 방문하였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정원 같았던 이곳에서 저희 태국팀 단원들은 예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곳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Doi Tung Royal Villa & Mae Fah Luang Garden은 '왕비정원' 이라고도 불립니다. 현 국왕의 어머니, 스리나가린드라(Srinagarindra)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도이퉁 (Doi Tung • Mountain Flag)` 프로젝트 운동인 녹화사업과 아편추방 운동, 주민들의 재활사업에 애정을 갖고 이 운동을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마약재배와 중독에 빠져 있는 북부 지역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거대한 정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어놓고 재배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현재는 생태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치앙라이 YMCA 소개

치앙라이 YMCA 호텔 안에 있는 컴퓨터실에서 이곳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치앙마이-치앙라이 포함해 태국 북부에는 총 6곳의 YMCA 지부가 있습니다. 치앙라이 YMCA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케어 센터와 호텔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앙라이 YMCA에서는 구순구개열(언청이) 어린이들의 성형 치료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북부 지역에는 구순구개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순구개열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순구개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먹고, 말하고, 듣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적으로 보이는 차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서도 힘든 점이 많습니다.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부족 공동체의 아이들인데, 이들은 태국 시민권이 없어서 치료하는 데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99년에 'The Northern Women's Development Foundation(NWDF)' 단체에서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북부 지역과 인접 국가인 라오스, 버마 어린이들의 구순구개열을 성형 치료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었습니다. 치앙라이 YMCA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독거 노인분께 쌀 등의 식료품을 갖다드리러 댁에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앙라이 워킹스트리트

저녁 8시쯤에 치앙라이 시내에 있는 워킹스트리트에 갔습니다. 치앙라이를 상징하는 시계탑에도 가보며 치앙라이에서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 했습니다.



2010.5.14

‘AIDS ACCESS FOUNDATION CHIANGRAI’ NGO 단체 방문

태국의 ‘AIDS ACCESS FOUNDATION CHIANGRAI’ NGO 단체는 1991년에 설립되어 HIV, 에이즈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AIDS ACCESS FOUNDATION CHIANGRAI’ 치앙라이 지부는 1992년에 설립되어 HIV, 에이즈를 앓고 있는 성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상담을 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온아띠 태국 팀은 이곳에 방문하여 스태프들로부터 기관 설명을 듣고, 관련 영상도 시청하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 무료로 약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을 먹는다고 에이즈가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진행되고 악화되는 것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기관 관계자께서 한국의 에이즈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 보셔서 한국과 태국의 에이즈 관련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관 방문을 끝으로 저희가 묵고 있는 치앙마이 싹캉펑 YMCA로 이동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 2박 3일 동안 알찬 비자 트립을 보내서 즐거웠습니다.



4. Make a Report (2010. 5.15 ~ 5.16)

2010.5.15

피프레 선생님과 회의

치앙라이 비자트립을 갔다 온 다음 날인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싹강펑 YMCA 내 회의실에서 피프레 선생님과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크게 지난 라온아띠 생활, 다음주부터 있을 홈스테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피프레 선생님께서 저희 라온아띠 태국팀 단원들에게 지난 2개월 동안 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싫었고, 어떤 것이 좋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단원들은 피프레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상의를 한 다음 정리하여 얘기를 드렸습니다. 2개월 간 태국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재미있고 좋았던 점도 많았지만, 저희 라온아띠와 YMCA 스태프들 간 소통에 있어서 문제점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후, 피프레 선생님과 YMCA 스태프 피요는 앞으로 남은 2개월 반 동안은 마음을 열고, '왜(WHY) 내가 태국에 왔는지' 항상 상기시키며 활동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주 수요일부터 있을 홈스테이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라온아띠 태국팀 단원들은 5월 19일 수요일부터 7월 9일 금요일까지 약 2개월간 태국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할 예정입니다. 단원 한명씩 각기 다른 가정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오전, 오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태국 현지 가정에서 태국 가족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 말에 있을 중간평가를 비롯해 주말마다 싹강펑 YMCA 숙소로 돌아와 필요한 것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전부터 저희 단원들이 모두 궁금해 했던, 어떤 단원이 어느 가정에 가서 살게 될 것인지를 이번 회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평가 & 홈스테이 수업 준비(2010.5.15 ~ 2010.5.16)

5월 27일부터 2박 3일간 한국 YMCA의 김도한 팀장님과 이아나 간사님이 중간평가를 위해 태국 싹강펑 YMCA에 오시게 됩니다. 저희 라온아띠 태국팀 단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중간평가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남미영 단원은 YMCA 현지 관계자분들을 위해 지난 3,4월 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류지현 단원과 박상준 단원은 중간평가 발표 때 쓸 PPT 작업을 했습니다. 이지윤 단원은 5월 말에 제출할 5월 보고서를 미리 작성했습니다. 주한이 단원과 이지윤 단원은 중간평가 때 한국 YMCA 스태프분들께 보여드릴 동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날인 5월 16일에는 전날 끝내지 못한 중간평가 준비를 마저 하면서 홈스테이에서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각자 분담하여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and Village (2010. 5.19 ~ 5.27)

2010. 5. 19 - 홈스테이 일정 시작

라운아띠 태국팀 단원들의 두 달 간의 홈스테이 일정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태국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됩니다. 삼강평 YMCA에서 차로 30분정도 떨어진 마을에 있는 '반 후아이 까우'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반 후아이 까우' 학교는 분교 형태로 작은 규모이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곳에 있으며 318명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야외 강당에서 선생님, 학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개가 끝나고, 홈스테이 할 가족들을 만나 뵙고, 학교를 돌아보며 각자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홈스테이 가정 소개

- 남미영 단원 & 깁 (초등학교 4학년)



- 류지현 단원 & 뱀 (초등학교 5학년)



- 박상준 단원 & 니우 (초등학교 4학년)



- 이지윤 단원 & 애나 (중학교 1학년)



- 주한이 단원 & 빅 (초등학교 4학년)



홈스테이 생활 - 학교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세면을 마치고 아침식사를 한 뒤 6시 40분쯤에 등교합니다. 이지윤 단원의 경우, 홈스테이 하는 집이 바로 학교 앞이라 6시 45분쯤에 학교에 도착합니다. 다른 단원들의 집은 학교까지 거리가 꽤 되어서 학교 공동기금으로 운영되는 썬테우 비슷한 차를 타고 학생들과 함께 등교를 합니다. 오전 7시쯤이 되면 단원들은 홈스테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도착합니다. 학교에 마련된 라온아띠 오피스에서 그날 수업을 준비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7시 30분에 300여명의 전교생이 학교 앞마당에서 조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 일렬로 서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각 학년 대표자가 나와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조회가 끝나면 학생들은 청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8시 30분부터 1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수업시간은 1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은 따로 없어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점심 시간이고, 이후 오후 3시 30분까지 수업을 한 뒤 종례 조회를 한 뒤 하교합니다.



홈스테이 생활 - 집

단원들이 하교 할 때는, 학교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홈스테이 가정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홈스테이 가정 아이들을 비롯해 이웃 집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태국어를 배우거나 배드민턴을 치거나 축구, 농구 등을 합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10년 전, 초등학생 때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았던 때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하며 지내니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밌습니다. 바깥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저녁식사를 준비하시는 홈스테이 가정 아버님,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식사 시간, 이후에는 주로 가족들과 함께 한국, 태국의 문화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 나야하기 때문에 주로 9시나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5월 22일, 23일 주말에 있었던 데이 오프에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지운 단원의 홈스테이 가족은 불교여서 사원에 갔고, 나머지 네 명의 단원의 집 종교는 기독교여서 단원들과 가족들은 교회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친척, 친구들이 한국 사람의 방문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홈스테이 가정으로 놀러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말 이틀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 생활 등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존에 살던 곳과 생활면에서 다른 점이 많아 초기에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우선, 태국어로만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YMCA에서 태국어를 배운 것을 토대로 기본적인 소개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간 말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말이 안 통할 때는 바디 랭귀지를 사용하거나 미소로 대신하며 언어를 뛰어넘는 다른 여러 수단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원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는 빗물을 받아 물을 사용합니다. 간혹 녹물, 시멘트물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원들도 있었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는 초반에는 남미영 단원과 류지현 단원이 체를 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지윤 단원은 알러지가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힘든 만큼 배우는 것이 많다’는 피 폐차린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홈스테이 자체를 즐기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모습

‘반 후아이 까우’ 학교에는 학생 수에 비해 선생님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의 수업은 ‘ETV’ 라는 우리 나라 교육방송과 비슷한 영상 수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각 시간에 맞는 영상을 틀어주고 학생들은 그 영상을 보며 필기를 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교 수업에 들어가는 초기 단계라 일주일 동안은 참관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어떤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보고,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식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라운아띠 태국팀 활동 시간표 (5.20~5.27)

날짜/시간	8:30-9:30	9:30-10:30	10:30-11:30	점심시간	12:30-13:30	13:30-14:30	14:30-15:30
5.20 목	라운아띠 소개	사원수업 참석					한국노래 수업
5.21 금		유치원 수업 참관				수업 참관, 로컬 랭귀지 배움	
5.22 토	데이 오프				데이 오프		
5.23 일	데이 오프				데이 오프		
5.24 월		유치원 수업 도우미	수업 참관		수업 참관	고학년 농업 수업 참관, 활동	
5.25 화			수업 참관		수업 참관		한국수업
5.26 수		유치원 수업 도우미	수업 참관				한국수업
5.27 목		유치원 수업 도우미	수업 참관		쌈캉펑 YMCA로 이동		



한국 문화 수업

‘한국 수업’ 시간에는 각 단원들이 돌아가면서 기본적인 한국 인사말 배우기, ‘머리 어깨 무릎 발’, ‘떴다 떴다 비행기’ 노래 배우기, ‘얼음땡’, ‘가위 바위 보’ 등의 한국 게임해보기 등의 수업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까울리(한국), 까울리’ 하면서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앞으로 있을 수업을 준비하거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라운아띠 오피스를 가장 한국적으로 보이도록 꾸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 Midterm Evaluation (2010. 5.26 ~ 5.28)

2010. 5. 27 만남

5월 26일에 한국 YMCA의 김도한 팀장님과 이아나 간사님이 베트남 중간평가를 마치시고 태국에 오셨습니다. 이날 태국팀 단원들은 마을에서 묵고 있는 중이라서 바로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27일 오전에 태국팀 단원들은 유치원 아이들과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는 도중에 김도한 팀장님과 이아나 간사님이 저희가 활동하는 학교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이것저것 하느라 환영의 인사를 반갑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태국팀 단원 다섯 명이서만 지내다가 두 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 너무 반가웠습니다.

바로 이어서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컴퓨터 수업에 참관한 뒤, 한국 - 치앙마이 YMCA 스태프분들과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인사를 한 뒤 학교를 떠나 단원들이 홈스테이 하고 있는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섯 집을 다 둘러보며, 단원들의 집을 챙기고 원래 숙소였던 싹강펄

YMCA로 돌아왔습니다. 싹캉펑 YMCA에서 약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시내로 나갔습니다. 이지윤 단원이 26일부터 알러지를 앓고 있어서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병원에 들린 다음에 한식당 '대장금 숯불갈비' 에서 한국-치앙마이 YMCA 스태프분들과 조촐하게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식사를 한 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김도한 팀장님, 이아나 간사님이 묵고 계신 치앙마이 YMCA 호텔에 태국팀 단원들도 함께 묵으며 지난 2개월 반 동안 라온아띠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 그 중에서도 제일 인상 깊었고 즐거웠던 점, 팀에 대한 얘기 등을 했습니다. 다음날 치앙마이 YMCA 스태프분들과 하지 못할 얘기들을 미리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장님, 간사님으로부터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0. 5. 28 중간평가

아침 9시에 치앙마이 YMCA 호텔에서 싹캉펑 YMCA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본격적인 라온아띠 3기 태국팀의 중간평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치앙마이 YMCA 스태프분들, 저희 태국팀 단원들이 참여한 중간평가는 총 3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남미영 단원이 그동안 태국팀이 활동했던 내용을 PPT를 띄워가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주한이 단원이 5월 한 달 동안 많은 고민 끝에 만든 중간보고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태국팀의 활동내용에 대한 발표가 끝나고, 각 단원이 그동안 느꼈던 점 등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앙마이 YMCA 스태프이신 피프레 선생님과 폐차린 선생님은 저희 태국팀 단원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라온아띠 태국팀의 활동 중간 보고가 끝난 다음, 이아나 간사님의 7월에 있을 라온아띠 활동 평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중간평가가 끝난 다음에, 28일 밤 비행기로 한국으로 떠나실 팀장님, 간사님과 함께 태국 치앙마이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수공예품으로 유명한 보상마을, 와로로 시장, 센트럴 플라자 등을 방문하며 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날 저녁식사로 태국식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팀장님, 간사님과 함께 앞으로 라온아띠 단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 인생에 대한 얘기 등 여러 얘기를 많이 하며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라온아띠 태국팀은 밤 10시에 치앙마이 국제공항으로 팀장님과 간사님을 배웅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뵈었던 팀장님과 간사님. 공항에서 배웅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아쉬운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8월 귀국보고회 때 밝은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



Epilogue

우선, 라온아띠 3기 태국팀 5월 보고서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보고서라 두서도 없고, 사진 크기도 제각각이어서 많이 부족한 글입니다. (지난 3, 4월 태국팀 언니들이 쓴 보고서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네요T T) 용량이 커서, 사진이 잘 열릴지 궁금하네요. 5월 보고서를 쓰면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일을 정리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5월은 제 개인적으로 라온아띠 활동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태국에 오고나서 지난 3, 4월은 한국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이곳 생활이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5월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이 너무나 그리워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심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도 알아가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역시 '긍정의 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온아띠 활동을 하면서 제 자신이 조금 더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5월 활동에는 유스캠프, 태국어 시험, 중간평가, 홈스테이 등 굵직굵직한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간평가 때, 한국 - 치앙마이 YMCA 스태프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라온아띠 전체를 비롯해 여기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태국팀 다섯 명의 단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라온아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많은 아시아 사람들을 위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로 평생을 두고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라온아띠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동안 라온아띠 단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온아띠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산지도 이제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딱히 뭐 잘한 일이 없네요. 앞으로 남은 70여일 동안 정말 후회 없이, 매사 열심히 임하면서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월에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길 바라며

라온아띠 태국팀 파이팅!

라온아띠 3기 여러분 모두 파이팅! ♥